

19세기 후반 제작 산형도로 본 표현방법

권혜진* · 김정문** · 노재현***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I. 서론

전주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경기전을 비롯하여 전주이씨 시조를 모신 사당인 조경묘(肇慶廟)와 시조묘인 조경단(肇慶壇), 태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목대, 이목대 등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유적지는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생지’ 또는 ‘풍패지향(豊沛之鄉)’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시조묘 조경단은 전주가 조선 왕실의 본향이라는 역사성을 확보하는데 중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II. 肇慶檀 관련 그림

1. 완산도형¹⁾

완산도형은 전주성 내와 그 둘레의 지역, 즉 완산지역을 멀리서 조망한 지역도이다. 둘레의 산과 성내를 그린 이중 구도를 보이며, 전주성 내는 조경묘와 경기전 그리고 관청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완산도형은 전주 성내를 자세하게 그린 다른 전주지도들과는 다른 용도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이예성, 2005). 또한, 남문 밖의 곤지산(坤止山)과 완산칠봉(完山七峯), 산신당(山神堂), 성비(성碑), 서문 밖에 정(井) 2곳, 수(수), 북문 밖의 건지산국내(乾止山局內)의 용어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 전주의 풍수형국과 전체의 입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2. 조경묘경기전도형²⁾

조경묘는 전주이씨 시조인 이한과 그의 비인 경주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묘이며, 경기전은 태조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했던 곳이다. 조경묘가 세워지게 된 것은 1765년 시조묘의 봉축 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영조 47년(1771) 전주 경기전 북쪽에 조경묘를 건립하고 이한과 그의 비인 경주김씨의 위패를 봉안하였다(이예성, 2005). 특징은 조경묘와 경기전을 주변의 경치와

함께 건물의 칸수와 수목, 학이 날아드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그린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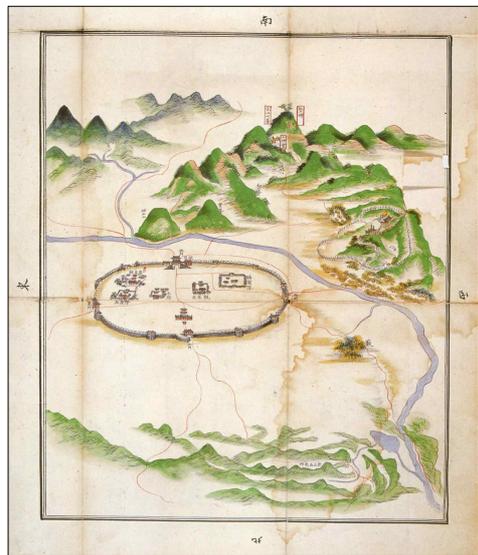


그림 1. 완산도형(完山圖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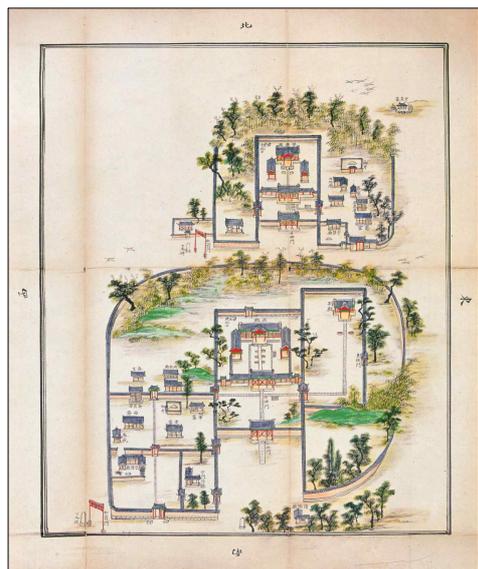


그림 2.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慶基殿圖形)

3. 전주건지산도형³⁾

전주에 있는 건지산을 앞쪽에서 올려다 본 시점에서 전주이씨의 시조인 사공공과 이한의 묘역을 중심으로 산 전체를 조망하여 그린 산형도로 조경단과 비각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조경단과 비각의 건립이 완성된 후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예성,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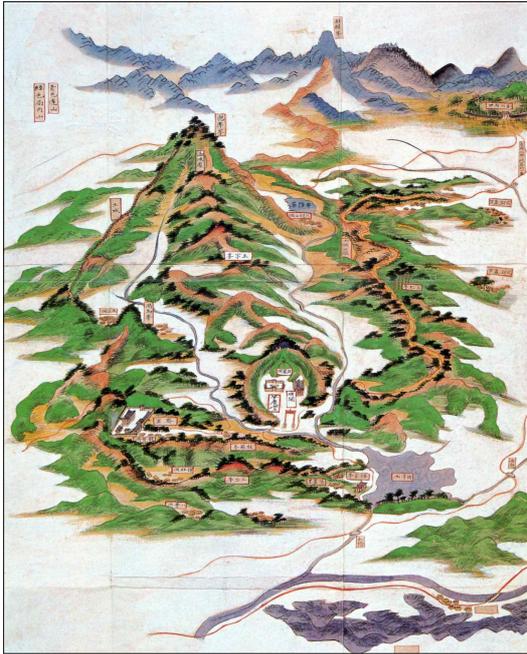


그림 3.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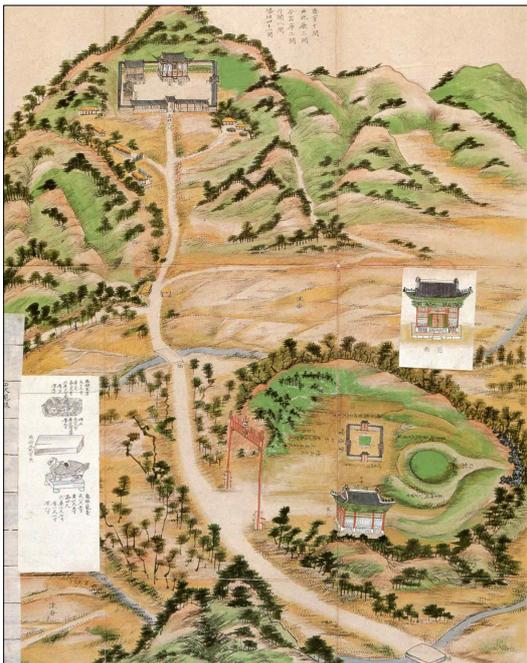


그림 4.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4. 조경단비각재실도형⁴⁾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전주 건지산 중턱에 위치한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의 묘역 주변을 그린 일종의 묘소도형으로 '전주건지산도형'과 화풍, 크기, 재질, 내용 등이 같아 전체도와 부분도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예성, 2005).

III. 고찰

‘전주건지산도형’은 전주의 건지산을 앞쪽에서 올려다 본 시점으로 전주이씨의 시조인 司空公 李翰의 묘역을 비롯하여 산 전체를 조망하여 그린 산형도이며,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건지산 중턱에 위치한 이한의 묘역 주변을 그린 일종의 묘소도형으로 두 지도는 전체와 부분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조경단의 건립은 영조 41년(1765) 건지산에 있는 시조묘를 봉축하지는 청으로부터 발단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연대가 멀어 조역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고종 31년(1899)에 이르러 건지산에 제단을 쌓고 세우는 등 묘역을 정리하여 봉축하고 시조묘로써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조경단과 비각이 건립된 이후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전주건지산도형’은 왕에게 보고할 때 조경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경단비각재실도형’에 붙어 있는 별지에 그려진 비석의 모양과 치수 그리고 비각에 앞면을 그려 붙인 또 다른 별지는 이 지도의 용도를 잘 말해준다.

두 지도 모두 통일된 시점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화법과는 다른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의 경우 연한 붉은색과 연두색 그리고 진한 양록을 적절히 섞어서 채색한 아주 가는 필선으로 주름을 그려 산을 표현하였으며, 나무들도 보이는 상태 그대로를 묘사한 듯 사실적이다. 채색에 있어서도 비각의 지붕과 묘역 둘레에 양청과 양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담채와 사실적인 묘사, 시점의 통로가 원근법의 적용 등에서 근대적인 회화의 성격까지 엿볼 수 있다.

전주이씨 시조와 관련된 또 다른 지도는 ‘완산도형’과 ‘조경묘경기전도형’이다. ‘완산도형’은 전주성 내와 그 둘레의 지역 즉 완산지역을 멀리서 조망한 지도이며, ‘조경묘경기전도형’은 조경묘와 경기전을 주변의 경치와 함께 그린 것이다. 그런데 ‘완산도형’에는 다른 도시도와는 달리 전주성 내에 조경묘와 경기전 그리고 관청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어서 ‘완산도형’이 ‘조경묘경기전도형’의 전체도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IV. 결론

전체도와 부분도의 형식은 전국도와 지방도, 군현도와 읍도 등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과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완산도형(完山圖形)’과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基殿圖形)’에 서처럼 극히 제한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그린 것은 특이한 예라 하겠다. 이들은 현재 한 별로 보관되어 있지도 않으며, 함께 제작되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크기와 재질, 화풍과 사용된 안료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과 관계된 지역을 그리고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졌던 지도들일 가능성이 있다.

주 1. 1899년 이후, 지본채색, 표지: 26.2×19.0, 화면55.7×46.0, 장서각(K2-4568).

주 2. 1899년 이후, 지본채색, 표지: 26.2×19.0, 화면55.7×46.0, 장서각(K2-

4387).

주 3. 1899년 이후, 지본채색, 표지: 26.2×19.0, 화면: 61.3×49.2, 장서각(K2-4348).

주 4. 1899년 이후, 지본채색, 표지: 26.2×19.0, 화면: 63.2×49.7, 장서각(K2-4386).

인용문헌

1. 박정혜 외(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 이태우(2006) 명당풍수와 조경수목. 일진사.
3. 이육(2006)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종교지형의 근대적 변화 대한제국기 황실의 존숭과 조경단 건립. 한국학중앙연구원.
4. 이예성(2005a) 19세기 특정한 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회화 -장서각 소장 고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서울 민속원: 53-68.
5. 이예성(2005b) 조선 후기의 왕릉도.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서울 대원사: 203-234.
6. 안선호, 홍승재(2007) 조선시대 태조 진전의 건축 특성과 공간 구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3(7): 223-232.
7. 호남지방의 묘지풍수(湖南地方의 墓地風水)파일 형식: PDF/Adobe Acrobat
8. portal.nrcip.go.kr/kr/data/mkr/original/download.jsp?no=1250&mode.